

韓國數學教育的變遷考察

朴 漢 植

§0. 序 論

技術革新에 따른 數學教育現代化 問題는 이제 세계적인 問題로 登場되었다[5]. 韓國의 數學教育도 이에 뒤지지 않게 努力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留意할 것은 우리들의 立場을 于는 理解하는 일이다. 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주는 뜻과 같이 우리나라 數學教育이 變遷되어 온 발자취와 環境, 그리고 여러가지 條件을 考慮해서 우리들의 數學教育을 現代化하는데 無理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本論文을 쓰게 된 첫째 理由이다.

둘째로는 韓國의 教育一般에 對해서는 이미 韓基彥教授의 著書[1]가 있고, 分科別로는 羅絢成教授의 著書[2]가 있다. 그러나 아직 數學教育에 對해서는 이렇다할 것이 아직 안보이므로 이 機에 整理를 해 놓자는 것이다.

이 論文은 甲午更張以後 1967年까지의 數學教育의 變遷을 다루어 보려고 한다. 첫번에는 單純한 資料의 編纂에 그치지 않고 社會, 經濟, 政治와의 關係하에, 問題에 對해서는 可及的 全面的, 客觀的인 考察을 하려고 했으나 時間的 制約, 資料의 負困, 財政的인 問題로 因해서 이를 達成하지 못하고 이 問題는 後日을 期約하기로 했다.

內容은 §1에서 甲午更張에서 韓日合併까지 다루고 §2에서는 日政下에서 韓國의 數學教育, §3에서는 解放에서 오늘날까지의 變遷을 論述한다.

§1. 甲午更張에서 韓日合併까지

1-1 新教育의 始作

1895年(高宗 32年) 2月 2日 高宗은 다음과 같은 教育詔書를 全國民에게 내렸다[6].

詔勅朕惟我 祖宗業을 創하시 統을 垂하시미 茲에 五百四年을 歷有하시니 實我 列朝의 教化와

德澤이 人心에 浹洽하시미며 亦我臣民이 厥忠愛를 克殫호물 由호미라 이러므로 朕이 無疆호 大歷服을 嗣호야 夙夜에 祇懼호야 오작 祖宗의 遺訓을 是承호노니 爾臣民은 朕喪을 體恤지어다 오작 爾臣民의 祖先이我 祖宗의 保育호신 良臣民이니 爾臣民도 亦爾祖先의 忠愛를 克紹호야 朕의 保育호는 良臣民이라 朕이 爾臣民으로 더브러 祖宗의 丕基를 守호야 萬億年의 休命을 迓續호노니 嗚呼라 民을 教치아니면 國家를 鞏固케호기 甚難호니 守內의 形勢를 環顧호건더 克富호며 克強호야 獨立雄視호는 諸國은 皆其人民의 知識이 開明호고 知識의 開明호은 教育의 善美호므로 以흠인 則 教育이 實로 國家保有호는 根本이라 是以로 朕이 君師의 位에 在호야 教育호는 實을 自擔호노니 教育도 또한 其道가 有호지라 虛名과 實用의 分別을 先立호미 可호니 書를 讀호고 字를 習호야 古人의 糟粕만 擷拾호고 時勢의 大局에 曖昧호는 者는 文章이 古今을 凌駕호야도 一無用호 書生이라 今에 朕이 教育호는 綱領을 示호야 虛名을 是祛호고 實用을 是崇호노니 日德養은 五倫의 行實을 修호야 俗綱을 紊亂치勿호며 風教를 扶植호야 卍人世의 秩序를 維持호고 社會의 幸福을 增進호라 日體養은 動作에 當이有호야 勤勵호므로 主호고 惰逸를 貧치勿호며 苦難을 避치勿호야 爾筋을 固케호며 爾骨을 健케호야 康壯無病호 樂을 享受호라 日智養은 物을 格호미 知를 致호고 理를 窮호미 性을 盡호야 好惡是非長短에 自他의 區別을 不立호고 詳究博通호야 一己의 私를 經營치勿호며 公衆의 利益을 跂圖호라 日此三者는 教育호는 綱紀니 朕이 政府를 命호야 學校를 廣說호고 人材를 養成호은 爾臣民의 學識으로 國家의 中興大功을 贊成호기 爲호미라 爾臣民은 忠君愛

國는 心性으로 爾德爾體爾智를 養하라 王室의 安全흥도 爾臣民의 教育에 在하고 國家의 富強흥도 爾臣民의 教育에 在하니 爾臣民의 教育이 善美호境에 抵치못하면 朕이엇지몰으디 朕의 治가 成하라하며 朕의 政府가 엇지 敢히 몰으디 其責을 盡하다하리오 爾臣民도 教育하는 道에 心을 盡하며 力을 協하야 父가 是로써 其子에게 提誘하고 兄이 是로써 其弟에게 勸勉하며 朋友가 是로써 輔翼하는 道를 行하야 奮發不已홀지어다 國家의 儼를 敵홀이 惟爾臣民이며 國家의 侮를 禦홀이 惟爾臣民이며 國家의 政治制度를 修述홀이 亦惟爾臣民이니 此皆爾臣民의 當然호 職分이 어니와 學識의 等級으로 其功效의 高下를 奏하느니 此等事爲上에 些少호 缺端이라도 有하거든 爾臣民도 亦惟日호되 爾等의 教育이 不明호 然故라 하야 上下同心하기를 務하라 爾臣民의 心은 所호 朕이心이니 屬홀지어다 爾臣民이여 惟朕此言

이로서 教育이 國家發展의 原動力임이 천명되 었고, 또 古典의 讀書로서 一貫되었던 書堂教育에서 脫皮해서 德, 體, 智의 均等한 教育에의 飛躍이 約束되었다.

1-2 漢城師範學校

1895年 4月 16日字로 漢城師範學校官制가 勅令 79號로 公布되고[7] 漢城師範學校에 本科(2箇年卒業)와 速成科(6個月卒業)가 設置되어 1895年 5月 1日부터 施行되였다. 이어서 本科學生 100名과 速成科學生 60名의 募集이 公告되었는데 入學試驗科目은 두科 모두 同一하게 “國文의 讀書와 作文, 漢文의 讀書와 作文”으로 되어 있다. 이것에서 미루어 이 때까지 韓國의 教育에서 數學教育은 除外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어서 1895年 7月 24日字 學部令 第 1號로 서 漢城師範學校와 附屬中學校의 規則이 公布되 었다[8]. 이것에 依하면

第三條 漢城師範學校本科學員의 課호 學科目은 修身 教育 國文 漢文 歷史 地理 數學 物理 化學 博物 習字 作文 體操로호
但 時宜에 依하야 諸科目中에 一科目 或數科 科目을 減홀이可호

第五條 漢城師範學校 速成科는 小學校敎員의 急需에 應호를 爲호이니 其學科目은 修身 教育 國文 漢文 歷史 地理 數學 理科 習字 作文 體

操로호

但 時宜에 依하야 科目을 減홀이 可호

第十一條 漢城師範學校의 本科에 課호 學科目의 程度는 左갓치定호

學科程度表

數學 算術及代數幾何의 初步와 其敎授法(其他 學科는 略함)

第十二條 漢城師範學校 速成科學員의 課호는 學 科目의 程度는 左갓치定호

學科程度表

數學 算術(其他 學科는 略함)

以上에서는 師範學校에서 敎授한 數學의 程度를 알길이 없으나 如何間에 數學의 教育이 始作되었다는 것 만은 알 수 있다. 以後 1908年의 學部令 第 17號로서 官立 漢城師範學校에 講習科가 設置되고[9], 이 講習科에 入學을 許可할마한 者의 資格으로 國語, 漢文, 日語, 算術의 學力試驗에 合格한 者로 되어 있다. 入學試驗에 算術科目이 插入된 일은 注目할 만하다. 이算術의 程度를 알기 위하여 다음에 小學校를 살펴보기로 하자.

1-3 小學校의 數學

1895年 7月 22日字로 勅令 145號에 依하여 小學校(尋常科 3箇年, 高等科 3箇年)이 公布되 었다[10]. 이것에 依하면

第一條 小學校는 兒童身體의 發達흥에 鑒하야 國民教育의 基礎와 其生活上 必要호 普通 智識과 技能을 授호므로써 本旨로호

第八條 小學校의 尋常科敎科目은 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術 體操로호

時宜에 依하야 體操를 除하며 또 本國地理 本國歷史 圖畫 外國語의 一科 或 數科를 加하고 女兒를 爲하야 裁縫을 加호를 得호

第九條 小學校 高等科의 敎科目은 修身 讀書 作文 習字 算術 本國地理 本國歷史 外國地理 外國歷史 理科圖畫體操로호고 女兒를 爲하야 裁縫을 加호

時宜에 依하야 外國語 一科를 加하여 또 外國地理 外國歷史 圖畫一科 或 數科를 除호를 得호

小學校令에 있는 敎科目의 內容은 學部令 第 3號 小學校敎則 大綱으로 公布되었는데 이 內容은 다음과 같다[11].

第五條 算術은 日用計算에 習熟하게 하고 兼하여 思想을 精密케 하고 또한 生業上에 有益한 知識을 與함을 要旨로함 尋常科에는 最初에는 十位 以下數의 範圍內에 置하는 計算法과 加減乘除를 授하고 漸次로 數의 範圍를 擴하여 萬以下數의 範圍內에 置하는 加減乘除와 通常小數의 計算法를 授함이 可함

初年으로부터 漸次로 度量衡貨幣와 時刻의 制를 授하고 是를 日用事物에 應用하여 其計算에 習熟케 함이 可함 尋常科에는 筆算과 珠算을 用하고 또 筆算珠算을 併用함은 土地의 情況에 依함이 可함

高等科에는 筆算珠算을 併用하되 珠算은 加減乘除를 練習하고 筆算은 初에는 度量衡貨幣와 時刻의 計算을 練習하게 하고 漸進하 는대로 簡易한 比例問題와 通常分數小數를 併하여 授하며 또 學校의 修業年限에 應하고 다시 複雜한 比例問題等を 授함이 可함

算術을 授함이 理會力을 精密케 하고 運算에 習熟하여 應用에 在하기를 務하고 또 항상 正確한 言語를 用하여 運算의 方法과 理由를 說

明케 하고 또 暗算에 熟達케 함을 要함

算術의 問題는 他의 教科目에서 授한 事項을 適用하고 또는 土地의 情況을 斟酌하여 日常適切한 者를 擇함이 可함

다시 1906年 8月 27日 勅令 第44號에 依하여 本學校令은 廢止되고 普通學校令이 새로 公布되었다[1]. 따라서 小學校令은 制定된지 滿 10年만에 廢止되고 小學校가 普通學校로 改編된 셈이다.

改編된 普通學校를 勅令第44號 [12], 學部令 第23號[13]에 依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1條 普通學校는 學徒의 身體發達에 留意하여 道德教育及國民教育을 施하고 日常生活에 必要한 普通知識과 技藝를 授함으로써 本旨를 達함이다.

第6條 普通學校의 教科目은 修身과 國語와 漢文과 日語와 算術과 地理歷史와 理科와 圖畫와 體操로 하고 女子에는 手藝를 加함이라.

時宜에 依하여 唱歌와 手工과 農業과 商業中에 一科目或幾科目을 加함을 得함이라.

普通學校 各學年 教科課程 及 每週教授時數表 (算術)

教科目	時數	第 1 學 年	時數	第 2 學 年	時數	第 3 學 年	時數	第 4 學 年
算 術	6	計 書 算 法 通 常 加 減 乘 除	6	通 常 加 減 乘 除	6	通 常 加 減 乘 除 小數의 呼法 書 法 及 加 減 乘 除 及 分 數 度 量 衡 貨 幣 及 時 的 計 算	6	同 上
計	28		28		30		30	

算術 教授要旨

日常計算에 習熟케 하여 生活上 必要한 知識을 與하며 兼하여 思量을 精確케 함으로 要旨를 達함이라

初에는 簡易한 數의 計法과 書法及 加減乘除를 教授하고 漸進하여 通常의 加減乘除并小數及分數의 呼法과 書法及 加減乘除를 教授하고 漸

次度量衡貨幣의 時刻大要를 教授함이라

筆算을 爲主하여 用함이 可하나 或土地情況에 依하여 珠算을 併用함도 得함이라.

理會를 精確히 하고 運算에 習達하여 應用自在케 함을 務하고 또 運算의 方法及 理由를 正確히 說明케 하고 心算及 運算에 習熟케 함을 要함이라.

問題는 他教科目에서 授한 事項及 土地의 情

沉을 斟酌하여 日常適合한 것을 選擇이라
 上記한 教科課程과 教授要旨는 學部令第6號

에 依하여 1909年 7月 5日부터 다음과 같이 改
 正되었다[14].

普通學校 教科課程 及 每週 教授時數表(算術)

教 科 目	第 1 學 年		第 2 學 年		第 3 學 年		第 4 學 年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算 術	6	簡 單 的 數 의 計 數 法 書 法, 加 減 乘 除	6	通 常 及 加 減 乘 除	6	同 上 及 小 數	6	諸 等 數 分 數, 步 合 算
計	28		28		30		30	

算術 教科 教授 要旨

算術은 日常計算에 熟習케 하며 生活上 必要
 한 知識을 與하고 兼하여 思考를 精密케 함으로
 써 要旨로 함

算術은 初次는 簡單한 數의 計算法, 書法及 加
 減乘除를 教授하고 進야는 通常의 加減乘除
 와 並히 小數 諸等數及 簡易한 分數, 步合算을
 教授함이 可함

算術은 筆算을 用함이 可함 土地狀況에 依하
 야 珠算을 併用함을 得함.

算術을 教授함에는 理會를 正確히 하며 運算
 에 熟習해야 應用自在케 함을 務하고 又運算의
 方法及 理由를 正確히 說明케 하며 且暗算及 速
 算에 熟習케 함을 要함

算術의 問題는 他教科目에 教授한 事項及 土
 地狀況을 斟酌하여 日常適切한 것을 選擇이 可함

以上에서 小學校나 普通學校에서 算術을 課함
 은 크게는 日常生活에 必要한 知識을 주는 것이
 었다. 따라서 內容도 日常生活에 必要한 것에 限
 定하고 이에 맞추려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4 高等學校의 數學

普通學校 卒業을 入學資格으로 하는 學校를 高
 等學校와 高等女學校로 하였다.

高等學校의 數學教育을 먼저 1906年 8月 27
 日에 公布된 勅令第42號 高等學校令[15]과 同
 年 9月 3日에 分布된 高等學校施行規則[16]에
 依하면 다음과 같다.

高等學校令 第1條 高等學校는 男子의게 必要
 한 高等普通教育을 施함으로 目的을 함이라.

高等學校令施行規則 第4條 高等學校의 本科
 學科目은 修身 國語 漢文 日語 歷史 地理 數學
 博物 物理 化學 法制經濟 圖畫 音樂 體操로 하
 되 但 法制經濟及音樂은 關호도得함이라

第5條 高等學校의 各 學科目을 教授하는 左와
 如함이라.

七. 數學 算術은 卑近하고 日常生活에 適當한
 問題로 由야 運算의 理由를 詳細히 하고 兼하
 야 心算及 速算法을 熟習케 하며 代數와 幾何及
 簿記는 其大要를 知得케 함을 要함이라.

高等學校 學科課程 及 每週 教授時數表(數學)

學 科	時數	第 1 學 年	時數	第 2 學 年	時數	第 3 學 年	時數	第 4 學 年
數 學	4	算 術	4	算 術 代 數	4	代 數 幾 何 簿 記	4	同 上
計	30		30		30		30	

上述한 高等學校施行規則은 1909年 7月 5日
 學部令 第4號에 依하여 다음과 같이 改正되었

다[17].

數學의 教育要旨: 數學은 數量의 關係를 明確

히 하며 計算에 熟習케 하고 兼히야 生活上 必要한 知識을 與히야 思考를 精確케 함으로써 要旨로 함.

數學은 算術, 代數, 幾何, 簿記를 教授함이 可함.

高等學校 學科課程 及 每週 教授 時數表(數學)

學 科 目	第 1 學 年		第 2 學 年		第 3 學 年		第 4 學 年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數 學	6	算術, 代數	5	代數, 幾何	4	代數, 幾何 簿 記	4	幾 何 簿 記

다음에는 高等女學校의 數學教育을 1938年 4月 2日에 公布된 勅令第 22號 高等女學校令[18] 同年 4月 7日에 公布된 學部令第 9號 高等女學校施行規則[19]에 依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高等女學校令 第 1條 高等女學校는 女子에게要한 高等普通教育及 技藝를 授함을 目的으로함 高等女學校令施行規則 第 4條 高等女學校本科의 學科目은 修身, 國語, 歷史, 地理, 算術, 理科, 圖畫, 家事, 手藝, 音樂 及 體操도함. 但 手藝中에 刺繡, 編物, 組絲, 褻物, 造花及 割烹의 一科目或數科目을 隨意科目으로 하고 外國語(日語를 除함)及 教育大要를 隨意科目으로 해야 加함을 得함

第 5條 高等女學校本科의 各學科目 教授要旨는 左와 如함

七. 算術 日常의 計算에 習熟케 해야 生活上에 必要한 知識을 與하고 兼히야 思考를 精確케 함을 要함.

算術은 小數, 分數, 比例, 步合算을 授하고 又 學校修業年限에 應히야 求積平面幾何의 初歩及 代數의 初歩를 授함을 得함

算術은 筆算을 用함이 可하되 土地情況에 依하야는 珠算을 併用함도 得함

위의 施行規則도 高等學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09年 7月 5日 學部令第 2號에 依하여 다음과 같이 改正되었다[20].

算術의 教授要旨; 算術은 數量의 關係로 明白히 하며 日常計算에 熟習케 하고 兼히야 生活上 必要한 知識을 與히야 思考를 精確케 함으로써 要旨로 함

算術은 整數, 分數, 小數, 比例, 步合算을 教

授함이 可하고 又 學校修業年限에 應히야 幾何及 代數의 初歩를 授함을 得함 算術은 筆算, 珠算을 並用함이 可함

高等女學校 本科學科課程及 每週 教授 時數表 (數學)

學 科 目	第 1 學 年		第 2 學 年		第 3 學 年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算術	2	分數, 分數	2	分數, 小數 珠算	2	比例, 步合 算, 珠算
計	27		27		26	

1-5 師範學校의 數學

師範學校令이 1906年 8月 27日 勅令第 41號로 公布되고 同校의 入學資格은 普通學校卒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師範學校의 數學教育은 高等學校의 數學教育에 準하되는데 그 大要를 勅令第 41號 師範學校令 [21]과 學部令 20號 師範學校令施行規則[22]에 依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師範學校令 第 1條 師範學校는 普通學校의 教員될만한 人材를 養成함으로 目的을 함이라.

師範學校施行規則 第 5條 師範學校本科의 學科目은 修身教育, 國語, 漢文, 日語, 歷史, 地理, 化學, 博物, 圖畫, 音樂體操로 함이라. 但, 音樂은 現今間만 함을 得함이라.

第 6條 師範學校의 各學科目을 教授하는 要旨는 左와 如함이다.

八. 數學 算術은 精密히 教授해야 運算의 理由를 詳解케 하며 兼히야 心算及 速算法을 熟習케 하고 代數及 幾何는 基礎를 教授함이라.

師範學校 本科學科課程 及
每週 教授 時數表 (數學)

學年 學科目	時數	第1學年	時數	第2學年	時數	第3學年
	數學	3	整數, 分數, 小數	3	前學年的續及比例百分算	4
計	34		34		34	

위의 施行規則은 1909年 7月 5日 다음과 같이 改正되었다[23].

數學教授의 要旨; 數學은 數量의 關係를 明白히 하더 計算에 熟習케 하더 且普通學校의 算術教授하는 方法을 會得케 하고 兼하야 生活上必要한 知識을 與하야 思考함을 精確케 함으로써 要旨로 함.

數學은 算術, 代數, 幾何를 授受함이 可호 算術은 運算의 理由를 昭詳히 하고 兼하야 心算及 速算을 熟習케 하며 代數幾何를 基初步를 授受함이 可호

師範學校 本科 學科課程 及
每週 教授時數表 (數學)

學年 學科目	第1學年		第2學年		第3學年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數學	6	算 術	2	代數, 幾何	2	同 上
計	34		33		31	

1-6 實業學校의 數學

1909年 4月 26日 勅令第56號로서 實業學校令이 發布되고[24] 同年 7月 5日에 學部令第1號로서 實業學校令施行規則이 發布되었다[25]. 이들에 依하여 實業學校에 있어서의 數學教育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實業學校令 第1條 實業學校는 實業에 從事함에 要한 教育을 施함으로써 目的함.

實業學校令施行規則 第2條 實業學校本科의 學科目은 實業에 關한科目及 實習以外에 修身國語 及 漢文, 日語, 數學, 理科로함 但 數學理科를 關한거나 又 地理, 歷史, 圖畫, 法規,

統計, 測量, 體操 及 其他 學科目을 加함을 得호(以下 省略).

農業學校 學科 課程 及
每週 教授 時數表 (數學)

學年 學科目	第1學年		第2學年		第3學年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數學	5	算術, 幾何	4	幾何, 代數	4	代數, 簿記
計	30		30		30	

商業學校 學科課程及 每週教授時數表(數學)

學年 學科目	第1學年		第2學年		第3學年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數學	5	算術, 珠算	4	幾何, 代數	3	同 上
計	34		34		30	

工業學校學科 課程及 每週教授時數表(數學)

學年 學科目	第1學年		第2學年		第3學年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時數	程 度
數學	5	算術, 幾何	5	幾何, 代數	5	代數, 三角術, 簿記
計	35		36		36	

1-7 概觀

1895年 教育詔書가 發布된 以來 普通學校 高等學校로 해서 1909年 實業學校까지 初 中等學校의 令이 公布되었는데 數學의 內容도 算術을 除外하고는 代數, 幾何의 教授內容이 어느 程度인지 教授要旨로는 알길이 없는 莫然한 것이다. 算術도 四則計算의 範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便 생각해 볼 때 이와 때를 같이 해서 英國에서는 J. Perrry의 數學教育改造에 關한 講演이 1901年에 있었고, 美國에서의 有名한 E. H. Moore의 講演도 1902年의 일이다. 外國에서는 이미 數學教育의 內容과 方法에 革新을 가져 오기 위해서 努力을 하고 있을 때 韓國의 數學

教育은 이제 幕을 올린 셈이다. 15世紀에 들어서서 歐洲의 大學에서 數學을 다룬 것을 생각할 때[26], 實로 400餘年の 隔差가 있다.

§ 2. 日政下의 數學教育

앞 節에서 甲午更張에서 韓日合併까지의 數學教育을 다루었는데 이들은 韓末大韓帝國이 獨自的으로 研究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日本人顧問들의 指揮下에서 이루어졌다[27]. 따라서 日政下의 數學教育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므로 日政下의 數學教育을 日本數學教育史와 따로 다루어 볼 興味가 없으므로 日政下의 數學教育은 現代 數學教育史[4]에 미루기로 한다. 다만 解放以後의 數學教育을 考察하기 위하여 解放當時 韓國에서 施行되고 있었던 數學教育만을 살펴 보기로 한다[28]. 1942年 3月에 中學校教授要目이 刷新되어 公表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中學校 理數科教授要目

理數科는 事物現象을 正確히 考察處理하는 能力을 鍊磨하고 事物現象을 貫通하는 [理法과 그 應用과의 一般을 會得시키며 이것을 國民生活에 活用하는 修鍊을 시키고 合理創造의 정신을 長養하고 國民發展의 實을 올리는 資質을 啓培함을 要旨로 한다.

理數科數學은 數量 空間을 中心으로 하여 事物現象을 考察處理하는 能力을 鍊磨하고 數理와 그 應用의 一般을 會得시키고 이것을 國民生活에 活用하는 修練을 시키고 數理思想을 涵養시킨다.

理數科數學은 數量 空間의 基本的性質과 그 重要한 理法 및 國防産業과 國民生活에의 應用에 對해서 教授한다. (以下 理數科 物象에 對해서 인데 省略한다)

理數科 數學 教授方針

授業에 있어서는 數, 量, 空間의 關聯을 重視하고 第一類와 第二類와의 二系統을 緊密하게 關聯시키면서 一體인 數學의 目的을 達成시키는데 努力하라.

低學年에서는 具體的인 操作에 依해서 基礎的 考察處理의 能力을 鍊磨하고 學年이 進級됨에 따라 數理의 嚴正한 考察로 向하게 하고 高學年에

서는 綜合的 考察力을 涵養시켜라.

實則 作圖等의 作業을 重視하고 知行一體로 하여 抽象하고 具體化하는 [行動을 鍊磨하고 研究創造의 能力을 養成하라.

反復練習에 依해서 基本的事項을 體得시키고 同時에 實地로 活用하는 能力을 鍊磨하라.

教授要目

第一學年

第一類

統計의 處理(統計資料의 蒐集과 整理, 여러가지 指數와 率, 步合)

文字의 使用과 公式(公式, 方程式, 實驗公式)

陽數, 陰數

一次方程式(等速運動, 直交座標, 一次方程式 聯立一次方程式, 二直線의 交點)

第二類

測量, 測定(자와 副尺, 平板測量, 算術平均, 概算, 計算尺)

圖形을 그리는 法(平面上의 基本作圖, 簡單한 投影圖 여러가지 曲線)

圖形의 合同; 直觀과 論理와을 一體로 하여 圖形의 合同에 關한 概念을 明確히 한다.

圖形의 對稱과 回轉(對稱의 中心, 軸, 面回轉의 中心軸, 規則 바른 圖形)

第二學年

第一類

整式(整式의 四則, 乘法의 公式)

分數式(簡單한 分數式, 比例式)

제곱과 제곱은(表의 作成과 使用, 補間法, 數의 開平)

二次方程式(二次式의 變化, 二次方程式의 解法, 二次式의 因數分解)

第二類

平行과 相似(直線, 平面의 平行, 平行四邊形, 比例, 面積, 體積, 相似圖形)

直角三角形(直角三角形의 性質, 銳角의 三角函數)

圓과 球(圓과 球의 基本的性質, 比例, 圓에內接 또는 外接하는 多角形)

第三學年

第一類

多項式 多項式的 除法에서 그 展開까지 多次式的 計算에 習熟시킨다(多項式的 除法, 多項式的 展開, 近似值)

不等式: 不等式, 基本事項을 整理擴充시키고 그 取扱에 習熟시킨다(不等式的 基本的 性質, 不等式的 解法)

로그: 指數法則을 分明히 하고 指數의 擴張을 하며 로그計算에 習熟시킨다(指數의 性質, 로그의 性質, 로그表, 計算圖表)

第二類

軌跡: 圖形의 連續의 變形移動을 考察하고 軌跡의 觀念을 明確히 한다(運動하는 點이 그리는 圖形 條件을 滿足시키는 點이 存在하는 範圍, 條件에 따라서 움직이는 圖形)

圓運動과 三角函數: 圓運動의 考察에서 一般角의 三角函數를 誘導하고 그 基本事項을 分明히 한다(圓運動, 角速度, 弧度法, 極座標, 三角函數의 變化, 三角眞數表)

三角形과 三角函數: 三角函數를 三角形과 關聯시켜서 考察시킨다(sine 法則, cosine 法則, 加法定理, 三角形의 解法, 一般圖形에의 應用)

第四學年

第一類

數의 處理: 有限個의 것을 分類處理하는 能力을 養成한다(順列, 組合, 確率, 二項定理)

自然數와 級數: 自然數의 簡單한 性質을 考察시키고 級數에 이른다(自然數의 性質, 級數)

系列의 觀察處理: 一定한 法則에 따라서 無限이 生成하는 數와 圖形의 考察을 하고 極限의 觀念을 誘導한다(數列, 圖形의 系列, 區分求積法)

連續的變化的 考察處理: 連續的變화를 中心으로 하여 極限의 考察處理를 行한다(近似值, 極限, 接線)

第二類

投影圖와 透視圖: 投影圖法의 基本事項의 取扱을 訓練하고, 直線, 平面의 位置關係를 考察시켜서 透視圖에 이른다(直線, 平面의 位置關係, 投影圖의 읽기와 그리기, 簡單한 透視圖)

球面上의 圖形: 球面上의 圖形에 關한 基本事項을 考察시키고 球面圖形을 平面에 描寫하는 것을 取扱하고 地圖作成에 이른다(球面上의 圖形, 地圖)

圖形의 切斷: 平面에 依한 圓柱, 圓錐의 切斷面을 觀察시키고 圓錐曲線의 基本的性質을 綜合적으로 考察시킨다(圓柱, 圓錐의 切斷, 圓錐曲線의 基本性質)

第五學年

第一類

函數의 變化: 極限의 觀念에 依해서 函數를 考察하고 그 應用을 圖謀한다(函數의 變化, 極大, 極小)

統計圖表의 考察: 統計圖表에 對한 考察을 깊게 하고, 實驗式에 關한 處理까지 한다(度數分布, 平均과 偏差, 相關關係, 實驗式)

第二類

圓錐曲線: 圓錐曲線의 考察을 中心으로 하여 圖形의 解析的取扱의 基本事項을 指導한다(直線과 圓, 圓錐曲線의 標準方程式)

힘과 運動과의 考察: 힘과 運動에 關해서 考察시키고 數學의 應用에 익숙하게 한다(速度, 加速度, 週期運動, 힘과 運動)

教授上의 注意

全般에 걸쳐 關係觀念의 涵養에 留意하여라. 思考의 表現은 恒常 이것을 正確簡潔하게 하도록 하여라.

問題는 덮어 놓고 많이 할 것이 아니라 持久의 所以로 考察하는 態度에 徹底하도록 하여라.

計算의 練習에 힘쓰고 計算 및 近似值計算에 習熟시켜라.

數의 計算 있어서는 暗算, 筆算 및 珠算을 쓰고 또 計算尺, 各種의 表의 使用에 익숙시켜라.

이 案이 나온 1947 年에는 中學校는 4 年이 되었다. 여기서 要目은 大體로 最後의 一學年을 없애는 以外에는 別다른 變化가 없었다,

그리고 高等女學校의 數學은 中學校와 달리 第一類, 第二類로 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1943 年 發表되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一學年(週當 30 間)

1. 數量과 式(統計圖表, 測量, 測定, 文字의

使用과 公式, 比例, 比例式)

2. 圖形을 [그리는 法(簡單한 投影圖, 여러가지 曲線)]

3. 對稱, 回轉: 直觀과 論理를 一體로 해서 圖形의 運動 및 對稱에 關한 性質을 取扱하고 圖形의 合同에 關한 觀念을 明確히 해서 圖形의 考察을 깊게 한다(對稱, 回轉, 圖形의 合同 決定, 模樣)

第二學年 (3 時間)

1. 陽數와 陰數(反對의 性質을 갖는 量, 數의 大小와 四則)

2. 一次 函數: 座標를 導入하고 一次式에 對해서 式과 圖表를 一體로 하여 그 變化를 考察시킴과 同時에 一次 方程式의 解法에 익숙케 하여 一次 不等式의 取扱에 이른다(直交座標, 一次式의 變化, 一次方程式, 一次不等式)

3. 平行과 相似: 平行과 相似에 關한 事項을 整理하고 特別히 圖形에 關한 比例의 概念을 分明히 하고 이들을 適用해서 圖形의 考察을 깊게 한다.(直線平面的 平行, 平行四邊形, 相似圖形)

4. 直角三角形(直角三角形의 性質, 銳角의 三角函數)

第三學年 (2 時間)

1. 2次函數: 特別히 反比例, 複比例의 觀念을 明確히 把握시킨다(2次式의 變化, 2次方程式, 其他의 函數)

2. 投影圖(直線, 平面的 位置關係, 投影圖, 設計圖)

第四學年 (2 時間)

統計와 率: 有限個의 것을 處理하는 能力을養成하고 統計에 關한 考察을 깊게 하고 여러가지 指數와 率에 關한 觀念을 明確히 하고 나아가서 國民生活, 家庭生活에 있어서의 數 및 量의 取扱에 習熟시킨다(分類, 整理, 統計, 여러가지 指數와 率, 家計, 貯蓄, 各種 料金の 計算)

이 要目은 從前의 것에 比하여 대단히 進步的인 것이다. 곧 算術, 代數, 幾何, 三角法等의 分科的인 것을 止揚하고 이들에 解析幾何, 微積分 畫法幾何, 統計, 力學의 基本的인 事項을 加味시켜서 綜合的으로 數學科를 構成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들 要目에 따른 教科書는 檢定이 아니고 몇 사람의 專門家에 依해서 著述되어 日本文部省이 發刊했는데, 그 記述은 全部 學生이 思考하고 實驗하고 計算하여 圖表를 그려 自主的으로 學習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教科書를 통해서 教育의 效果를 올리려면 적어도 이것에 先行해서 教師의 訓練이 必要했고, 數學實驗室, 學生의 教科書, 研究資料의 備置가 되어 있어야 했다. 이러한 前提없이 始作했으므로 數學教育은 失敗에 돌아가고 말았다.

§3. 解放 以後

1945年 8月 15日 解放이 되고 同年 10月 1日부터 各級 學校가 再開되자 不足한 教師와 教科書의 準備가 되지 않아서 各級學校에서는 解放直前に 使用하던 教科書를 翻譯 등사하여 使用하기도 하고 教師에 따라서는 1942年 以前에 使用한 代數·幾何·三角法의 教科書를 번역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軍政에서는 1946年 3月에 教授要目을 制定하여 發表하였다. 이때의 中等學校 數學科 教授要目を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0].

初級中學校 數學科 教授要目

第一學年 必修 175 時 (每週 5 時)

1. 測量 (35 時)	柱狀, 折線, 扇形, 棒, 矩形 pictograph 間接調查 圖表의 選定 正常分布의 概念 直接調查 資料의 蒐集 調查表의 作成 區間의 選定 率, %, 指數 代表值
2. 統計 (40 時)	3. 基本圖形 (35 時) 平面圖形의 基本作圖 건양도(見取圖) 等測圖를 넣음 展開圖
길이 재기	
副尺, 誤差, 算術平均	
거리 재기	
높이 재기	
縮圖法	
도형의 決定	
三角形, 四角形	
面積 재기	
縮圖法에 依한 面積 決定	
方眼紙使用	
概 測	
※ 計算尺	
※ 平板測量	

投影圖
 여러가지 曲線
 간단한 圖案
 對稱形
 線對稱, 面對稱
 二等邊 三角形, 圓
 回轉體, 球
 平行
 平行四邊形
 ※點對稱
 4. 文字와 負數 (35時)
 文字의 使用
 公式의 作成, 意味,
 利用
 比例

第二學年 必修 175 時 (每週 5 時)

1. 式의 變化와 變形 (75 時)
 直交座標
 平面위의 점의 자리
 一次式의 值의 變化
 一次式의 圖表
 기울기와 起點
 一次方程式의 解法
 圖解
 移項
 應用
 聯立 一次方程式의 解法
 二元 一次方程式의 圖解
 同代數의 解法
 간단한 三元一次
 一次不等式의 圖解
 整式의 四則
 整式의 加減
 二項式以下間의 乘法
 同乘法公式

平方의 比例
 複比例
 實驗式
 負數
 數線
 整數의 四則
 ※ 座標
 5. 表의 作製와 使用 (20 時)
 度量衡換算法
 單利表
 平方表
 平方根表
 複間法, 數의 開平

因數分解(共通因數,
 平方의 差, 視察로
 되는 二次 三項式
 의 因數分解)
 因數分解에 依한除
 法
 ※ 剩餘定理
 分數式의 計算
 分母分子 一次式以
 下
 簡便算
 二次式의 圖表
 二次式의 最大, 最小
 二次方程式의 解法
 圖解
 根의 公式
 根과 係數와의 基
 本關係
 ※ 二次式의 因數分解
 二次不等式의 解法
 圖解
 基本形의 代數의 解
 法
 分數函數

分母, 分子와 一次
 式以下
 分數方程式의 解法
 無緣根없는 것에限
 聯立 方程式
 一次와 二次 간단
 한 것에 限
 2. 圖形의 擴大, 縮小
 및 移動 (40 時)
 比例線
 相似圖形의 面積 體
 積
 圖形의 擴大, 縮小
 相似三角形
 弧度法
 平行移動
 回轉移動
 對稱移動
 全等과 對稱, 合同
 3. 圖形의 性質 (30 時)

第三學年 選擇 175 時(每週 5 時)

1. 三角函數 (45 時)
 加法定理, 減法定理
 三角函數의 圖形에의
 應用
 圓運動
 角速度, 角距離
 ※ 極座標
 ※ 螺線運動
 三角函數의 擴張
 三角函數의 變化
 ※ 三角函數表
 單振動
 公式의 擴張
 2. 近似計算 (35 時~40 時)
 近似值의 四則
 不等式의 結合
 誤差
 有效數字의 概念

三平方의 定理
 圓周角
 內接四邊形, 外接四
 邊形
 內接圓, 外接圓
 三角形의 五心
 方幕
 圓, 球
 4. 三角形과 三角函數 (30 時)
 直角三角形의 性質
 正接, 正弦 및 余弦
 三角函數表
 縮圖法과 三角測量
 三角形을 푸는 일
 二角과 一邊
 二邊과 그 夾角
 鈍角의 三角函數
 正弦定理, 餘弦定理

不等式의 證明
 概念에 그칠
 近似式
 多項式의 值
 剩餘定理
 3. 對數 (35 時~40 時)
 指數, 根數의 性質
 指數의 擴張
 $y=2^x$ 의 圖表와 數計
 算
 對數, 常用對數
 對數表, 對數計算
 計算尺
 製作와 使用
 乘, 除, 連乘除
 平方, 平方根
 圖計算

$$h = b \tan \theta$$

$$\frac{1}{a} + \frac{1}{b} = \frac{1}{f}$$

$ab=c$

$a^2b=c$

4. 軌跡 (50時 ~60時)
 機械의 運動
 日用機械
 점의 운동

高級中學校 數學科 教授要目

第一學年 必修 175時(每週 5時)

1. 論證 幾何(平面)
 (50時)

公理群
 直線形
 圓
 面積
 比例
 作圖題

2. 統計 (55時)

度數分布
 代表值
 算術 平均, 幾何平均
 中位數, 最頻數
 算術平均을 구하는 簡便法
 平均과 偏差
 平均偏差
 標準偏差
 相關關係
 相關表
 相關圖
 ※ 相關係數
 ※ 實驗式
 統計의 確率

第二學年 選, 175時(每週 5時)

1. 平面 三角法 (30時)
 一般角의 三角函數
 既修事項의 整理
 二倍角及 二分角의 三角函數
 恒等式과 方程式

軌跡을 구하는 법
 幾何的
 解析的
 간단한 作圖題
 軌跡交截法

3. 系列과 連續的 變化
 (70時)

自然數와 그和
 素數
 ※ 數學的 歸納法
 數列
 等差數列과 그和
 等比數列과 그和
 自然數의 二乘의和
 無限數列과 그 極限値
 區分求積法
 無限等比數列과 그和
 圖形의 系列
 無限小數
 連續的 變化
 變化率
 微分
 積分
 應用

逆三角函數를 넣음
 三角函數對數表
 三角形의 解法練習
 간단한 測量
 子午線
 六分儀

計算尺

縮尺에 依한 製圖

2. 代數學 (40時)

順列, 組合, 二項定理

組合의 原則

${}_nP_r, {}_nC_r$

같은 것이 있는 때의 總順列의 數

數學的 確率

獨立 試行의 確率

原因의 確率

級數의 和, 數學的 歸納法

$\sum nx^{n-1}$

$\sum^n (n+1)$

$\sum \frac{1}{n(n+1)}$

複素數

幾何學의 表示

和, 差, 積, 商

D'Moivre의 定理

二項方程式의 解法

方程式

必要條件, 充分條件

同値

根의 對稱式

判別式

虛根

左邊의 符號

※ 代數方程式의 實根

의 近似值計算

不等式

基礎定理

一元 三次不等式의

解法

相加平均 \geq 相乘平均

均

行列式

轉倒

行列式의 性質

小行列式

餘因數

應用.

3. 平面解析幾何學

(35時)

座標系

直交座標와 極座標

와의 關係

與線分을 與比로나

누는 點

座標의 變換

平行移動

回轉

一般의 變換

直線

交點, 交角

共線點, 共點線

一點과 一直線과의

거리

※ 三角形의 面積

圓

切線, 法線

圓과 直線과의 位

置關係

한점에서 그은 接線

※ 極及 極線

세 점을 지나는 원

두 점을 지나는 圓

證明問題

二次曲線

分類

準線, 焦點

漸近線

接線, 直線이 接線

되는 條件

接點을 지나는 두

焦點, 半徑과 等角

圓錐曲線

圓錐曲線三 二次曲線

4. 微積分學 (70時)

微係數

意味

常數倍, 和, 差의

微係數

微係數의 存在와 連續

$x^m, \sin x, \cos x$ 의 微係數

$\sin(mx+b)$ 의 \cos

$(mx+b)$ 의 微係數等

切線及 法線의 方程

第三學年 選擇

1. 微積分學 (105時~125時)

極限值 및 連續

基本概念

微分法, 微分

和, 差, 積, 商

合成函數

微分

逆三角函數의 導函數

指數函數, 對數函數

定義

導函數

高次導函數

媒介變數에 依한 函數의 導函數

Taylor 의 定理

不定形, 極限值

函數의 展開

多變數 函數

偏微分法

Taylor 의 定理

極大 極小

陰函數

導函數의 應用

方程式論에의 應用

幾何學에의 應用

不定積分

式

函數值의 極大, 極小

平均値의 定理

逐次微分法

曲線의 凹凸, 變曲點

※ 極大, 極小의 充分條件

不定積分

不定積分의 導函數

基函數

定積分

175時(每週 5時)

定積分

重積分

積分의 應用

平面圖形의 面積

曲線의 길이

立體의 體積

曲面의 面積

微分方程式

階, 一般解, 特殊解

解

變數의 分離

階線形

同次

二階

2. 立體幾何學 (50時~70時)

直線及平面

平面角 및 多面角

多面體

角柱, 角錐, 正多面體

面體

二次曲線

直圓柱, 直圓錐

柱面, 錐面

橢圓面, 雙曲線,

拋物面

母線

球, 球面三角形

圖法

側面圖, 斷面圖

等角投影

透視圖

地圖製作法

要 旨

1. 中等學校數學科는 數, 量, 空間을 中心으로 하여 自然, 勞働, 社會 一般의 事物現象을 定量的으로 分析하고 把握處理하는 能力을 練磨하며 그러한 習慣 態度를 붙이므로써 數理的 精神의 長養을 期할 것.

2. 教科의 內容은 될수 있는대로 그 事實, 方法, 節次가 그대로 實用이 될 것을 選擇하여 그것을 生徒心意의 自然의 發達에 適應되도록 排列할 것. 따라서 必要에 依하여는 다음 要目의 分合, 同一學年內의 順序變更도 無妨하고 ※ 累附는 省略하여도 可함.

3. 直觀을 尊重하고 持久의 考察의 習慣을 붙이여 發見創造의 意慾과 能力을 善導할 것.

4. 教授에 즈음하여는 初級에서는 觀察, 實驗, 實測, 作圖等의 具體的 節次로 부터 시작하여 教材의 真相과 基本性質을 把握시킨뒤 그것을 反覆練習하도록 하고 高級으로 가면서 嚴正한 定量的 考察을 하여 重要理法을 터득시키며 더 나아가서 綜合的 考察力, 應用力을 기르도록 할 것.

5. 教材는 生産에 直結되도록 하되 그 實際化, 具體化에 힘쓰는 나머지 散漫에 흐르지 않도록 할지며 可及 綜合的으로 다루도록 하되 늘 實情과 手法에 있어서 無理가 없도록 할 것.

6. 教材와 教授는 늘 縱橫의 連結에 留意하여 國民學校 및 大學의 課程과 緊密히 連結되고 科學科, 其他 學科와 가장 效果的인 連絡이 서도록 期할 것.

備 考

1. 教授時間은 每時間 45分의 間이며 必修, 選擇을 勿論하고 學年別로 規定된 것을 該學年에 實施하면 可함.

2. 用語는 우선 暫定的으로 慣用에 따랐으므로 制定되는대로 改訂할 것으로 함.

이 要目은 解放 直前의 것과 對照를 해 볼 때 高級中學校 第一學年에 論證幾何가 들어가 있는 것이 다르고, 數學을 第一類, 第二類로 分類하

지 않은 것이 다를 뿐 大同少異한 것이다. 解放後의 數學教師의 不足은 質의 低下를 招來했고, 이 要目에 立脚해서 崔允植, 鄭義澤等의 教科書가 나왔으나 그 內容의 敘述이 또한 解放前의 教科書의 敘述에 답았으므로 우리나라 數學教育은 解放直前에 日本이 밝은 事態를 다시 밝아 전질 수 없는 混迷狀態로 빠져 들어 갔다.

1950年부터 教育法이 改正되어 6·3·3 制의 새로운 學制가 實施되고 1954年 4月 20日 文敎部令 35號로 教育課程 時間配當 基準令이 發

表되었다.

中學校 教育課程 時間配當 基準表(數學)

		一 年	二 年	三 年
必須教科	數 學	140(4)	105(3)	105(3)
計		1190~1330 (34~38)	1190~1330 (34~38)	1190~1330 (34~38)

()內는 適當 時間表

高等學校 教育課程 時間配當 基準表(數學)

學 科		一 年	二 年	三 年	內 容
必須教科	數 學	140(4)			一次函數, 二次函數, 對數函數, 三角函數, 其他 一般敎養으로 必要한 一般 數學의 基礎를 研究함.
	解 析		105~210(3~6)		數學(一)의 基礎위에 解析을 研究함
	幾 何		70~140(2~4)		數學(一)의 基礎위에 幾何를 研究함
計		1190~1365 (34~39)	1191~1365 (34~39)	1190~1365 (34~39)	

1955年부터 實施하게 된 數學 教育課程의 內容은 參考[-]과 같은데, 이 內容은 實施해 온 教育課程에 比하여 아주 內容이 平易하다. 그런데 美國에서 건너 온 生活 單元에 의한 單元學習이 아무런 研究없이 導入되어 여기에 生活數學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生活問題解決을 위한 數學이 되어 또한 우리나라 數學教育은 새로운 試鍊期에 들어 섰다. 累積된 數學教育의 破綻은 內容의 平易化로 救濟될 것이 豫想되었으나 生活單元으로 因해서 그 實을 거두지 못했다. 또 必須教科의 數學과 解析, 幾何사이에 重複이甚하고, 中學校와 高等學校, 國民學校와 中學校 사이에 教材의 重複이 있어서 學習心理面에서 教材의 新鮮味를 잃게 되어 內容이 平易한데 反比例해서 學生들은 數學에 興味를 갖지 못했다.

文敎部는 變遷하는 社會에 맞추기 위하여 1962

年에 새로운 教育課程을 公布하고 1966年 3月에는 中學校, 1968年 3月에는 高等學校의 數學 教育이 改訂되어 運營하게 된다. 이 改正의 要點이나 性格은 [31]에 미루기로 하고, 教育課程의 內容은 [32]에 있으므로 省略하겠다.

그런데 1966年 3月부터 始作된 中學校 數學 教育에 美國의 S.M.S.G. 等의 實驗教科書의 內容의 一部가 系統性 없이 無批判하게 皮相의으로 導入되어 中學校 數學教育의 一角에서 벌써 無秩序한 面이 보이기 始作하였다.

§4. 結 論

一節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韓國의 數學 教育이 歐洲의 先進國家에 比해서 數百年의 隔差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려머는 于先 外國의 數學 教育을 模倣해야 하는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解放後 三次에 걸쳐서 數學教育課程을

바꾸면서 그 實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韓國의 數學教育이 아직 模倣의 領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原因이 있다고 본다. 이제 韓國의 數學教育이 1900年 當時와 같이 뒤떨어진 것이 아니다. 또 1945年 當時와 같이 數學教師가 大量으로 不足한 時代도 아니다. 우리들은 지난 날의 數學教育 不振의 理由가 那邊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反省하고 模倣에서 創作의 時代로 轉換해서 韓國固有의 數學教育觀 樹立을 해

야 할 것이다.

끝으로 序論에서 밝힌바와 같이 여러가지 與件이 如意치 못하여 研究初에 企圖한 것을 充分히 達成하지 못했는데 次後 機會를 보아 이를 補充해 나갈까 한다. 그리고 本論文 作成을 啓려해 주신 先輩 羅絢成, 韓基彥 兩教授와 資料蒐集을 도와 준 研究室의 崔英瀚助敎에게 感謝한다.

(1967. 7. 31)

參 考 文 獻

[1] 韓 基 彥	韓國教育史	서울 博英社	1963
[2] 羅 絢 成	韓靈體育史	서울 崇文社	1959
[3] 小倉金之助	數學教育史	日本 岩波書店	1932
[4] 小倉・鍋島	現代 數學 教育史	日本 大日本圖書	1957
[5] John G. Kemeny :	"Report to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The Mathematics Teacher Vol. LVI. No 2, 1963 pp. 66~78.		
[6] 官 報	開國 504年 2月初 2日		
[7] 官報 [第 17 號]	開國 504年 4月 19日(月)	內閣記錄局官報課	
[8] 官報 [第 121 號]	開國 504年 7月 24日(木)	"	
[9] 官報 [第4178號]	隆熙 2年 9月 16日(木)	內閣法制局 官報課	
[10] 官報 [第 119 號]	開國 504年 7月 22日(火)	內閣記錄局 官報課	
[11] 官報 [第 138 號]	開國 504年 8月 15日(木)	"	
[12] 官報 [第3549號]	光武 10年 9月 4日(火)	議政府 官報課	
[13] 官報 [第3549號]	光武 10年 9月 4日(火)	"	
[14] 官報 [第4424號]	隆熙 3年 7月 9日	內閣法制局 官報課	
[15] 官 報	光武 10年 8月 27日(月)	議政府 官報課	
[16] 官報 [第3548號]	光武 10年 9月 3日(月)	議政府 官報課	
[17] 官報 [第4424號]	隆熙 3年 7月 9日	內閣法制局 官報課	
[18] 官 報	隆熙 2年 4月 2日(木)	內閣法制局 官報課	
[19] 官報 [第4044號]	隆熙 2年 4月 10日(金)	內閣法制局 官報課	
[20] 官報 [第4424號]	隆熙 3年 7月 9日	"	
[21] 官 報	光武 10年 8月 27日(月)	議政府 官報課	
[22] 官報 [第3547號]	光武 10年 9月 1日(土)	議政府 官報課	
[23] 官報 [第4424號]	隆熙 3年 7月 9日	內閣法制局 官報課	
[24] 官報 [第4361號]	隆熙 3年 4月 27日	"	
[25] 官報 [第4424號]	隆熙 3年 7月 9日	內閣法制局 官報課	
[26] 小倉金之助	上揭書 p. 6~p. 49		
[27] 文 定 昌	軍國日本朝鮮強占三十六年史(上) p. 195~p. 215	서울 柏文堂	1965
[28] 小倉・鍋島	上揭書 p. 402~p. 413		
[29] 小倉金之助	上揭書 p. 6 ~p. 4)		
[30] 中等學校 數學科 敎授要目(1948, 夏季大學 數學科 講習 參考用) print			
[31] 朴 漢 植	數學教育 p. 67~p. 69	서울 現代 敎育叢書 出版社	1963
[32] 韓國數學敎育會誌	數學教育 Vol. 1 No. 1		1963. 3

參考 [一] 1955年 數學 敎育 課程(省略)

(서울大學校 師範大學)